뮤지컬·연극…예울마루에서 즐긴다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사업 선정
22~23일 가족뮤지컬 '알피'
8월 '켄터빌…'·9월 '갈매기'

가족뮤지컬 '켄터빌의 유령' /예울마루 홈페이지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가 전국 공연예술창제작 유통 협력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총 5건의 공연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창제작 환경 조성과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약 85억여원의 지원금이 편성됐다. 전국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지원을 통해 공모된 이 사업에서 예울마루는 전국 최다 개최기관으로 선정됐고 5건의 연극, 뮤지컬, 발레 공연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와이즈발레단의 'VITA' 공연으로 포문을 연 예울마루의 두 번째 공연은 오는 22~23일 열리는 이머시브 가족뮤지컬 '알피'다.

이 작품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과 극장에서 초청 공연을 펼치고 있는 브러쉬씨어터의 작품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이다. 꿈속을 여행할 수 있는 아이가 친구인 알피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머시브(Imemersive) 공연으로, 평소와 다르게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색다른 객석과 환상적인 무대장치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이다.

세 번째 공연은 다음 달 19~20일 열리는 가족뮤지컬 '켄터빌의 유령'이다.

'행복한 왕자' '도리안 그레이'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명작소설을 뮤지컬로 재구성한 '켄터빌의 유령'은 300년 간 사람들을 겁주던 유령과 솔직하고 당당한 여자아이가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그린 가족뮤지컬이다. 아이와 어른이 모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줄거리이며 여름을 맞아 유쾌하고 오싹한 작품을 관람하고 싶은 관객에게 추천하는 작품이다.

네 번째 공연은 9월 29~30일 열리는 연극 '갈매기'다. 러시아의 문호 안톤 체호프의 4대 장막극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꼽히는 '갈매기'는 100여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연극이다. 낭만적인 러시아 시골 정원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욕망, 질투, 사랑을 담았다.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이성열 연출, 1996년 창단돼 연극계를 수놓은 작품과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극단 '백수광부'가 제작을 맡았다.

다섯 번째 공연으로는 11월 11~12일 뮤지컬 '포파이'의 쇼케이스가 개최된다. 20세기 초 경제대공황시기 미국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포파이'는 신문 삽화를 그리던 무명 만화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뮤지컬 특유의 스토리텔링과 흡입력을 통해 관객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울마루 홈페이지(www.yeulmaru.org)와 전화 문의(1544-766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이번주 개봉영화

◇토르:러브 앤 썬더=천둥의 신 토르는 이너피스를 위해 자아 찾기 여정을 떠난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신들을 몰살하려는 신 도살자 고르의 등장으로 토르의 안식년 계획은 산산조각 나버린다. 토르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킹 발키리, 코르그, 그리고 전 여자친구 제인과 재회하게 되는데, 그녀가 묠니르를 휘두르는 마이티 토르가 되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한다.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 크리스 헴스워스·나탈리 포트만 주연. 119분. 6일 개봉.

◇빅샤크4:다공룡 대모험=빅샤크와 바닷속 친구들은 마법의 돌 매직스톤을 찾아 바다 끝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하지만 곧 엄청난 해저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마는데 그곳은 바로 전설 속 거대한 바다공룡이 사는 신비세계다. 거대한 공룡과 살아있는 삼엽충, 대왕 바다전갈에 몬스터 물고기까지 있다. 케일이 다른, 5억만년 전의 신비한 해저세계가 눈앞에 가득 펼쳐진다. 장초 감독, 김용·박소희 주연. 85분. 6일 개봉.

◇큐어=도쿄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의 엽기적인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놀라운 것은 체포된 범인들이 하나같이 회사원, 교사, 경찰, 의사 등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평소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에 의문을 품은 다카베 형사는 이들이 모두 한 남자를 만난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야쿠쇼 코지·하기와라 마사토 주연. 111분. 6일 개봉.

경성구락부 '신 청년' 국악창작 무대

9일 광주문화재단 토요상설공연

밴드 '경성구락부' /광주문화재단 제공

퓨전국악밴드 '경성구락부'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국악창작 무대에 선다. 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번 무대의 주제는 '신(新)청년'이다.

퓨전국악밴드 '경성구락부'는 지난해 창단돼 민요를 기반으로 한 뉴웨이브 국악을 선보이고 있다. 2021년 'MBN 조선판스타'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하고, 서울뮤직위크, 세계문화유산축전 등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 매체와 무대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음악의 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조선 '민중'의 음악이었던 민요를 현대 '대중'인 당신에게 전송합니다"이다. 현대적인 트로피컬, 일렉트로니카 사운드를 활용해 대중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감과 동시에 전통예술의 우수함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디스코 장르로 새롭게 구성한 '사설난봉가', 퓨처하우스 장르의 '태평가', 얼터너티브 락 사운드 '궁초댕기', 보사노바 느낌을 더한 '사설방아타령', R&B에 창부타령을 엮은 '신창부거리', 락블루스로 편곡한 '까투리타령', 디스코펑크의 후크송으로 탄생한 '비나리'까지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음악감독 한승민과 민요 소리꾼 양진수를 필두로 연주에는 가야금 문세미, 거문고 박소정, 해금 소윤선, 피리·태평소 김은경, 일렉기타 박성진, 베이스 김기우, 드럼 이주영이 출연하며 사회는 김산옥이 함께한다. /최진화 기자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79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국악문화학교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정가 등 9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 강좌도 가야금, 해금 2개 강좌가 운영된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과 어린이는 오는 오는 29일까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방문·전화 신청하면 되며, 각 과정별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빛고을국악전수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조아라 선생 추모 예배

내일 소심당 기념관 2층

고 조아라 선생 추모 19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추모예배와 기념강연이 8일 오후 2시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조아라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일생을 여성 지위 향상과 민주화 운동에 일생을 바친 인물로 광주YWCA 소심당 조아라기념사업회는 매년 7월 8일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추모 예배, 2부 강연에 이어 3부는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순으로 진행된다. 광주YWCA 소심당 조아라기념사업회가 주최하며 YWCA회원,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강연은 '그리운 조아라회장님-믿음, 소망, 사랑의사람'이라는 주제로 한신애 전 광주북구가족센터장이 나선다.

자세한 문의는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으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